



일광스님의 사랑하기 좋은 날

산골 초등학교 졸업식

얼마 전 산골 초등학교 졸업식에 다녀왔다. 강당에는 7명의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와 내빈들이 함께 했다. 교장 선생님은 제자 이름을 한명씩 부르며 당부했다. “숙이는 장래희망이 공무원, 민이는 일류요리사, 현이는 수학선생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환호성과 함께 격려를 해 주었다. 다음은 장학금을 받는 순서. 동문회와 마을 부녀회, 청년회, 사교 농장주와 딸기 작목반장, 산골절 주지 스님과 교회 목사님이 내놓는 썬트돈은 그 어떤 것보다 마음풍성해지는 정성이었다.

수여식을 마치자 한 졸업생 아이가 부모님 이름을 불렀다. 호명을 받은 두 분은 단상에 나와 딸을 마주보고 나란히 섰다. “위 부모님은 내가 6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생으로 뒷바라지 하였고 말을 안 들어도 내뿜지 않으셨으며... 그러므로 ‘최고의 부모님상’을 드립니다.” 한 아이는 자랑스런 조부모상을 드렸다. “이쁘게 키워주신 할머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호감시켜드릴게요.”

각자 사연이 담긴 상장을 손수 만들어 포박포박 읽는 모습에 콧물이 시큰하며 감동과 웃음이 쏟아졌다. 언니를 보내는 후배의 애절한 송사에 이어 의젓하게 답사를 하는 졸업생의 목소리도 쫓아왔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잘 있거라 아우들이 정든 교실아~”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가사를 따라 부르노라니 문득 콧물 흘쩍이며 품속에 맞춰 노래하던 내 초등학교 졸업식 장면이 떠올랐다.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꿈꾸듯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어른들...

아, 그랬구나. 그 시절에도 나는 꽃 같은 사랑을 받고 축하를 받았구나. 이렇듯 지켜주고 계셨구나. 늦게까지 놀고 있으면 ‘엄마 걱정하니까 빨리 집에 가거라’, ‘결석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디가 아픈가?’’ 등네 어른들이 들여다보며 걱정해 주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던가. 주위 어른들의 보살핌과 공덕으로 무장해하게 성장해 왔구나. 연초록 싸이 돌기 시작한 플라타너스 나무 사이로 와와! 병아리들의 울창한 함성소리가 들려온다. 저기 아이들의 웃음처럼 봄이 달려오고 있다.

거창 축림정사

노스님도 신도회도 불자도 ‘한마음 한뜻’

충본산성역화 불사 정성 담지 수행도반 ‘청맥회’ 2000만원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1억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이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량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계종 충본산 성역화 불사’에 기금이 답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과 정성이 보태지면서 모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사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여 년 전 뜻을 함께하는 중진 스님들이 모여 만든 수행도반 모임인 청맥회(회장 종호스님, 제23교구부사 관음사 조실)는 지난 3월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찾아 2000만원을 쾌척했다. 매년 한차례 해의 성지순례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순례 대신 성역화불사에 뜻을 모으기로 하고 이날 기금을 전달했다. 회장 종호스님은 “큰 불사에 우리도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수행도반 모임인 청맥회 스님들이 지난 3월22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충본산성역화 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왼쪽부터 법성, 도후, 자광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종호, 청우, 대원스님. 왼쪽 작은 사진은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뜻을 모았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성역화불사에 동참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여러 도움 덕분에 성역화불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종단 내 크고 작은 모임이 많은데 기금을 쾌척해 주신 것은 청맥회가 처음이다. 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청맥회 회원인 인사 주지 법성스님도 이 자리에서 성역화불사 기금 1000만원을 별도로 쾌척했다. 전달식에는 회장 종호스님, 전 회장 정우스님(강릉 등명낙가사 주지), 총무 대원스님(전안 각원사 주지)과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 양양 낙산사 주

지 도후스님 등이 함께 했다.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은 같은 날 불사 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김의정 회장은 “한국불교 최대 대작불사로 꼽히는 성역화 불사에 신도회장으로서 미력하겠으나 힘을 보태고 싶어 후원하게 됐다”면서 “명실상부하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도량으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도들과 함께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성역화 불사를 안내하고 있는 본지 사교(社告)를 보고 모연에 참여하는 불자들의 정성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

다.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정법회거사림 회원인 박태규 씨는 3월9일 100만원을 후원했으며, 손효진 씨는 손동민, 손희경, 손득규, 김인술 영가 이름으로 각 10만원씩 총 50만원을 불사 기금으로 내놓았다. 소액이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불자들도 있다. 불교신문 기사를 보고 동참하고 있는 서원 씨는 아들 이름으로 매달 3만원씩 입금하고 있으며, 조계사를 찾은 때마당 도량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전현우 씨도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으로 소액을 입금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21@ibulgyo.com

언제 어디서나 법문도 잘하는 스님 양성 ‘첫걸음’

3급 승가고시 ‘3분 설법’ 현장

포교의 기본인 법문을 잘 하는 스님을 키우기 위해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3월25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시행된 3급 승가고시 현장. 특히 올해는 ‘3분 설법’이 시험과목으로 신설됐다. 3분 동안 원고 없이 일정한 주제와 대상을 정해 법문을 하는 형식이다. 3급 승가고시에는 225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응시했다. 대부분 대중을 상대로 한 포교보다는 묵묵히 자기수행에 전념하던 스님들이었다. 적잖이 낯설고 어려운 경험이었으나 합격은 엄원하는 고3 수험생의 심정으로 다들 최선을 다 했다. “어떤 스님들의 법문은 내가 법문을 할 때 활용하고 싶은 정도로 매력적이었다”며 면접관 스님들은 박수를 쳤다.

승가고시는 1교시 1000자 이상을 써야 하는 논술, 2교시 객관식 및 단답형 주관식 지필고사 50문제, 3교시 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3분 스피치는 면접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면접장에 들어가 젊은 스님들의 실력을 엿봤다. 현재 공군사관학교 호국성무사 주지인 기



지난 3월25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3급 승가고시에서 응시한 스님이 ‘3분 설법’을 하고 있다.

학스님의 차례. 1주일에 3번 이상 장법들을 상대로 법회를 주관해야 하는 신분이어서인지 상당히 능숙하고 유창하다. “아집의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를 요지를 양손으로 안경은 그러거며 열심히 설명한다. “자기가 마음에 만든 이 틀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피하면서 제풀에 괴롭습니다. 수행을 통해 정견(正見)을 일구어나가야겠습니다.” 정확히 2분42초. 거의 바버대지 않았고 말투도 또박또박했다.

그러나 설법을 무사히 마친 후에 토로한 속마음은 쪼그라들어 있었다. “현역 군승이어서 설법은 웬만큼 도가 텅다고 생각했는데 큰 스님들 앞에서 서서 말을 하려니 손에 땀이 땀이 나네요.” 비구니 스님들도 열심히 준비했다. 봉녕사 금강울화승가대대학원 연구원 과정을 밟

고 있는 선정스님은 행자들에게 설법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수능시험 볼 때보다 더 떨렸다고. 그래도 “언제 어디서나 법문을 할 수 있는 스님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가 됐다”며 수줍게 웃었다. 말사 주지를 할 수 있고 상좌를 둘 수 있는 3급 법계는 그야말로 종단의 지도자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어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스님도 시험장을 직접 찾아 유심히 살펴봤다. 승가고시를 주관한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은 “우리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몇몇 스님의 법문은 아주 수준이 높았다”며 “올바른 신심을 복돋울 수 있는 전법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흐뭇해했다. 김포=장영섭 기자

포교원 인증 인성함양 프로그램 ‘청소년 마음등불’ 올해도 계속

‘애들이 마음이 행복...’ 등 17개

종단의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이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은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될 2017년도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이 확정됐다”고 지난 3월22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총 17개다. ‘애들이 마음이 행복한 나를 찾아봐’, ‘EGG 깨트림’, ‘활동명상’, ‘아하, 청소년 명상 상담캠프’, ‘마음 톡 TALK 명상’, ‘꿈사리 꿈과 끼를 펼쳐라’, ‘사랑해 명상캠프’, ‘상당이 있는 명상’, ‘힐링캠프’, ‘너, 나 하나라네’, ‘녹색등불 캠프’ 등이다. 관음사, 한마음과학원, 화엄사, 자비명상, 국제선센터, 명상심리상담학회 등 사찰과 단체 17곳이 신청한 프로그램이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증된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으로 서울, 부산, 인천, 장성, 남양주, 부산, 구례, 울산 등 10여 곳에서 실시된다. 1회당 참가인원은 20~30명 내외며 총 42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포교원 인증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 ‘청소년 마음등불’은 2013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공신력을 얻었다.

장영섭 기자 fue1@ibulgyo.com

창립 42주년
130평 대형선방
운영 30년
교육은 인생을 바꿨다!

참선교육 안내

참선교육을 통해서 확실한 신심이 생깁니다. 무량억겁을 생사윤회하다가 다행히 사람 몸 받고 불법 만났으며 참선법까지 만나는 것은 전생 선근인연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변에서 참선하는 것을 몰라 방황하는 불자들에게 교육날짜를 함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통의 전화가 참선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 | | | |
|---------|-------------------------------|-----------|---------|
| ■ 기 간 | 2017년 4월 4일(화) ~ 4월 25일(화) | 일 자 | 교육 내용 |
| ■ 일 시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4월 4일(화) | 참선의 자세 |
| ■ 강 사 | 현담스님(참선교육 1,2,3권 저자) | 4월 11일(화) | 참선의 종류 |
| ■ 장 소 |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4층) | 4월 18일(화) | 화두의 중요성 |
| ■ 동 참 비 | 3만원(점심공양 제공, 교재제공(참선교육 책 1권)) | 4월 25일(화) | 화두 참가법 |

불교 유식(唯識) 강의

진실의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정법을 들음으로써 아뢰야식속에 신심이 생겨지기 때문에 업식이 바뀌어 여러식은 마음이 없어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전미개오(轉迷開悟) 사상이 유식이다. 사람은 누구나 아뢰야식이 있다. 내용이 정품이나 불량품이라는 차이가 문제다.

| | | | |
|---------|---------------------------------------|-----------|-----------------------------------|
| ■ 기 간 | 2017년 4월 6일(목) ~ 4월 27일(목) | 일 자 | 교육 내용 |
| ■ 일 시 | 오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오후반 오후 7시 ~ 9시 | 4월 6일(목) | 불교의 인과법칙은 업상속(業相續) |
| ■ 강 사 | 현담스님(L.A 유식강의 저자) | 4월 13일(목) | 업의 잠복상태를 種子라고 한다. |
| ■ 장 소 |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4층) | 4월 20일(목) | 과거의 업에 의한 혼신을 습기(習氣)라 한다. |
| ■ 동 참 비 | 3만원(LA유식 교재 증정, 점심공양 제공) | 4월 27일(목) | 순간순간의 행위는 차례차례로 새로운 종자를 8식에 저장한다. |

修禪會 종로선방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02-732-5960)

중화대장경 불교의 정수 전106책

중화대장경은 고려대장경(제조대장경)보다 70여년 앞선 금장대장경(金藏大藏經, 1932년 광승사 발행)을 저본(底本)으로 중국에서 판각된 경전을 확인하기 쉽게 총망라한 대장경으로 현재까지 발행된 대장경을 총망라하여 불전을 집대성하고 교감기를 별도로 수록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 판매

총 106,000여쪽, 정가 980만원 → 판매가격 150만원
최고급 양장 실재본 · 케이스 포함, 4×6 배판형 중화대장경 106권과 총목차 1권 포함
국민은행 : 003-24-0295-219 / 농협 029-12-019888 (예금주 : 서정식)

문의 02)928-2889 010-5244-2880 010-4450-2880